

## 2과. 흠어지는 교회: 부르심의 이유

### 하나님 마음 알기

#### - 착각은 자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항목이나 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소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태도이며, 결국 하나님 없이 율법만 남은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숭배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이 오늘날 우리와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은 교회의 사명

이제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 착각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좁은 우리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누누이 세리와 창녀, 병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세리와 창녀, 병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선민'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우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소외도니 약자들과 만나기 위해 성전을 나오셨고,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행해지는 곳에 계시는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바리새인들처럼 '좁은 우리 신드롬'에 빠져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 "우리처럼 되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손을 내밀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섞여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리를 수호하거나, 은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쪽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만나는 예수님은 법을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정해진 법을 깨부수시고, 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와 은혜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교회도 예수님처럼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격한 은혜를 말해도 진리가 사라지지 않고, 불변의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셋째,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은 교회는 스스로 종이 되어 낮은 자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 받은 이유를 위해 철저히 낮아지겠다는 다짐으로 이러한 타락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므로써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게 하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에 늘 자신의 생각을 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는 교회에 필요한 용기를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 마음 찾기

1.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봅시다.

2.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좁은 우리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 담장 뛰어넘기

1.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좁은 우리 신드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인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로 인해 다른 교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2. 내 스스로가 낮아져서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이미 헌신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 기도제목